



릴레이칼럼

단미사료 30년사 ⑫



정 동 홍 님
전 농림부 축산이사관

단 미사료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며 우리나라 사료산업과 축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단미사료협회가 사단법인체로 설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여 참으로 감회가 깊다.

단미사료업계는 1978년 본인이 농림부에 전입된 해에 일부 어분제조업체들이 주축이 되어 협회가 설립되었으나 그 당시만 해도 영세한 업계로서 재정부족으로 셋방살이로 출발하였으나, 현재에는 자체회관을 설립하고 수십명의 전문인력과 수백명의 회원사를 확보하고 자체사료검사소까지 운영하는 중견 축산단체로 성장하였고, 사료종합 전문지인 월간 [피드저널]을 발간함으로써 사료·축산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국내 정보를 알려주고 틈새를 이용한 교양, 오락과 마음의 양식을 길러주는 중요한 기능을 해주고 있어 축산업계에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서 마음 뿌듯하다.

이와 같이 단미사료업계가 크게 발전하게 된 것은 국민경제의 성장과 축산물의 생산증가에 따른 사료의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현재의 유동준 회장님이 중심이 되어 회원사 모두가 똘똘뭉쳐 협동·단결하는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사료업계는 그간 배합사료 제조업계가 주도하여 주원료인 곡물류가 부원료인 강피류, 박류 등을 주로 수입·공급하고 동물약품업계에서는 사료첨가제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였고, 국내사료원료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배합사료원료의 9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고 사료의 안전성도 외국의 원료사정에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단미사료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하려고 국내 사료 자원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사료검사소 기능을 살려 국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원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다 해주고 있다.

단미사료는 곡물류, 강피류, 박류 등을 비롯하여 사료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거나 효용을 높이는 보조사료를 비롯하여 조사료, 남은음식물, 식품가공부산물 등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원료사료가 해당되는 아주 다양한 산업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사료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업계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사료와 동물약품 등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단미사료산업에 대한 회고

단미사료업계에서는 그간 자기들 품목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다른 업계에서도 관리하게 되는 이중적 모순을 갖는 모습이 수 십년간 지속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단미사료업계의 숙원은 자기품목을 찾아 관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 연구하고 단미사료가 타 품목으로 관리됨에 따른 불편함과 비용증가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려는 주장을 학계·정부 등에 수시로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수 십년간 해왔다.

그 당시 본인도 정부기관에서 사료관련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법령정비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업계의 반발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단미사료업계에서는 선진국의 사례와 양축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료는 사료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취지를 주장하면서 노력한 결과 단미사료업종이 체계적으로 분리되었고 보조사료의 범위가 확대되어 종전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관리되던 비타민, 아미노산등 상당품목이 사료용으로도 관리 될 수 있도록 체계화 되었고, 단미사료협회가 자가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 되는 등 법제화가 되었다.

그때 어려움을 함께 하며 고생하신 유동준 회장의 노력이 없었으면 실행이 불가능 실정이었다고 회고한다. 정책의 성공여부는 그 시책이 결정된 후 그 결과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과 같이 그 당시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업계의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 다시한번 회고하게 된다.

최근 들어 한·미 FTA협상이 체결되고 EU등과의 협상도 속속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의 축산업과 사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축산물 생산비의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를 절감시키는 일 즉, 국내사료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FTA를 기회로 물밑듯이 몰려올 수입사료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단미사료업계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정부에서 해야 할 기능이 협회로 위임된 만큼 책임이 더욱 큰 시기이다.

국내에서 개방할 수 있는 사료자원을 모두 찾아내야 한다. 한 해에 수조원씩 낭비되는 남은음식물을 사료화 하는 일부터 산야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 유희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산업화 하는 일 등이 경제성이 낮다는 경제논리에 밀리어 먼 곳만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사료자원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단미사료이다. 누가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자원시책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단미사료업계가 과거 발로 뛰면서 불모지를 개척하였듯이 온갖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 등의 자원에 대한 규격기준과 품질관리도 협회에서 연구하여야 할 대상이다.

단미사료협회 30주년을 맞이하는 성년 단체로서의 큰 성장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유동준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건투를 기대한다. ㉟